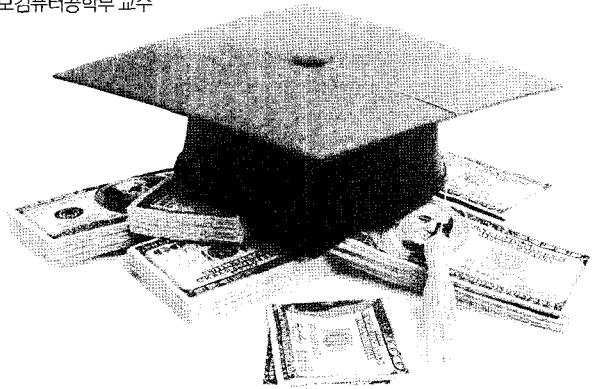


국내 대학 등록금의 적정선*

고비용/저효율 교육구조 및
GDP 대비 교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김민구 | 아주대학교 기획처장 | 정보컴퓨터공학부 교수



대학의 종류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GDP 대비 미국 다음으로 비싼 국가일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은 8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사립대학 비율도 90%에 육박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등록금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높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비용/저효율 교육구조 및 GDP 대비 교육비 문제를 중

심으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보았다.

1. 국내외 대학의 재정 수입구조

미국의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재정 수입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는 교육과학기술부 제294회 정기국회 보고 자료이다.

(단위: %)

구분	등록금	정부지원금	기부금	투자수익	병원	부속사업	기타
주립대학교	16.77	41.91	2.4	6.59	10.17	8.35	13.81
사립대학교	25.96	12.25	11.08	30.72	6.95	6.74	6.30

[표1 _ 미국 4년제 대학 재정수입구조('06-'07)]

한국의 주요 사립대학 11개의 평균 재정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자료는 대학정보공시 2010년 교비회계 자금 예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였다.

(단위: %)

등록금	정부지원금	기부금	전입금	교육부대 및외수입	기 타
59.3	2.0	5.6	16.0	7.0	10.1

[표2 _ 한국 주요 사립대학의 평균 재정수입구조(2010)]

일본의 대표적인 사립대학의 경우를 보면 자산관리 소득이 많은 대학 경우 총수입 대비 등록금 비율이 20%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비율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보자. 국내 대학의 등록금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연간 대략 7,000\$ 정도이고 국립대학의 경우는 약 60% 수준이라고 하자. 미국대학의 경우 편차는 심하지만 사립대학교는 대략 3만\$, 주립대학은 사립대학 등록금의 50% 정도라고 하자. 일본의 경우도 편차는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대략 15,000\$, 국립대학의 경우는 사립대학의 50% 정도라고 가정하자. 약 2만명 규모의 사립대학을 가정하면 각국 사립대학의 총수입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겠다.

2. GDP 대비 국내외 대학의 재정 비교

GDP 대비 국내 대학의 바람직한 재정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사립대학의 재정 규모를 먼저 추정해

(단위: 백만\$)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수입예산	236.1	2311.2	600.0
GDP대비(한국100 기준)	100	489	127

[표3 _ 추정된 2만명 규모의 사립대학 예산규모]

미국과 일본이 GDP 대비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미국대학은 우리나라 대학의 약 5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

으며, 일본 대학의 경우는 우리나라 대학의 약 1.3 정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3. 국내대학의 고비용/저효율 교육구조 및 개선 방안

우리나라 대학의 교육비 투자는 미국 대학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하고 일본에 비해서도 열악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하여 투자 대비 교육의 효과는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저효율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 습관이 시험 대비에 길들여져 있어 강의를 충실히 따라 가고 숙제를 통한 실력 키우는 학습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하다. 둘째, 교수도 충실한 강의와 철저한 과제물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미국 대학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10명 내외 수준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요 사립대학의 경우도 30명 내외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책임시수도 높은 편이다. 과제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조교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셋째, 인건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이다. 학교 예산의 지출에서 인건비의 비중은 각국 모두 총예산의 40-50% 정도인데, 교직원의 인건비는 GDP 대비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높은 편이나, 인원수는 적어 고비용/저효율의 교육구조를 갖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각 대학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선할 수 있겠다. 특히 교과부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지원 자금

등을 이용하여 합숙형 집중교육 등과 같이 기존의 학습 습관을 고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또한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철저한 졸업인증을 대학이 책임을 져야 한다.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 GDP대비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부투자 비율은 0.6%로 OECD 평균 1.0%에 모자라는 수준이다. 정부의 투자 비율을 늘리기 위해 교육역량강화 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의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 중 사립대학의 비율이 85%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 평가의 상위에 속하는 국립대학교의 수가 적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의 경우는 학생들이 자신의 형편과 기호에 따라 주립대학 혹은 사립대학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학을 늘리기 보다는 우수한 사립대학 중 원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준국립화'하는 것이다. '준국립화'라는 의미는 정부가 대학 인건비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대학 이사회의 이사들을 일정 비율 정부가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다양한 교직원 직군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수의 경우 산업교수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체 인력을 수요지향적 교

육에 활용하고 승진 등을 위한 평가는 교육 위주로 시행하고 대학 전임교수로는 계산하지만 대학의 연구실적을 계산할 경우 교수수로 계산하지 않는 등 교과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교수와 비슷하게 시간강사의 활용을 줄이고 전담강의교수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교직원의 경우도 다양한 직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 대학이 상당수의 행정조교(임시직)를 활용하므로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원의 경우도 미국처럼 직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스텝과 비서직으로 구분하여 전체적으로 같은 인건비로 임시직 행정직 수를 줄이고 비서직의 수를 늘리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바람직한 재정 규모 및 개선방안에

다른 등록금의 적정선

OECD 2010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OECD 평균 대학생 1명에게 투자되는 교육비를 40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32, 일본은 42, 미국은 58, 영국 44, 독일 40, 프랑스 39로 나와 있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대학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평균 수입재정의 약 25% 정도는 늘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지원금을 미국 사립대학 수준으로 약 10% 증가하는 시

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저렴한 등록금을 받는 대학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국립대학과 '준국립'대학의 수를 늘려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직원 직군의 활용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5%의 절감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기부금 모집 등을 통하여 자산을 늘리고 이를 투자로 전환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적립금이 많은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교과부에서도 등록금 환원율이 100%를 훨씬 상회하는 대학조차 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비리 사학재단의 경우는 철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지만, 대학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기금은 40조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 대학과 일본의 일부 대학의 경우는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 부분의 수입을 10% 이상 향상시키면 OECD 평균 수준의 대학 재정을 확보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의 적정 수준을 추정해 보자. 유럽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등록금을 받지 않으므로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교육비 투자액도 매우 높으며 등록금도 비싸므로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국립대학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립대학교 등록금 보다 GDP 대비 50% 저렴하지만,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은 GDP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만약 '준국립'대학

이 10개 이상 만들어지고 기존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지원을 강화하여 OECD 평균 수준으로 교육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금 체계를 생각할 수 있겠다.

구 분	현재 등록금(연간)	적정 등록금(연간)
국립대학교	500만원	400만원
'준국립'대학교		600만원
사립대학교	800만원	800만원

[표4 _ 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등록금의 적정선]

위에서 제시한 등록금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산을 통한 투자 수익의 극대화이다. 향후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기

부 문화와 투자 기술을 향상을 예상한다면 좀 더 낮은 등록금 수준을 생각할 수 있겠다.

필자소개

김민구 | 아주대학교 기획처장 | 정보컴퓨터 공학부 교수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학위를, Pennsylvania State Univ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KIST 연구원, 공연윤리위원회 뉴미디어부 심의위원, 한국정보과학회 인공지능연구회 운영위원장, University of Louisiana, CACS, 연구과학자를 거쳐 현재 아주대학교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교수 및 인공지능 연구실 지도교수 및 아주대학교 기획처장으로 재직중이다.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영상의 에지 특징정보를 이용한 주석기반 및 내용기반 영상 검색 시스템의 구현 (2001), 통합된 비디오 인덱싱 방법을 이용한 내용기반 비디오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및 구현 (2001), Automatic Short Story Generator Based on Autonomous Agents (2002) Extraction of Word Senses from Human Factors in Knowledge Discovery (2002), 체계적인 개발 방법에 기반한 C언어 프로그래밍 (2003) 등이 있다.